

휴비스, DuPont 상표 달고 세계로!

DTI와 OEM 생산 제휴 ... 세계 Polyester 기업으로 브랜드가치 극대화

Polyester 전문기업 휴비스가 세계적 화학섬유기업 DuPont Textiles & Interiors(DTI)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LYCRA>, <COOLMAX>, <TACTEL> 등 DuPont 제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한다.

DuPont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휴비스가 생산한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한다.

휴비스는 6월3일 미국 월밍턴 소재 DTI 본사에서 조민호 휴비스 사장과 스티브 맥크 레켄(Steve McCracken) DTI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휴비스는 자체생산 제품에 <LYCRA(라이크라)>, <COOLMAX(쿨맥스)> 등 DuPont 브랜드를 부착해 전세계에 공급하게 됐으며, DuPont 브랜드의 국내시장 판매권도 획득하게 됐다.

휴비스와 DTI는 어패럴(의류), 홈 텍스타일, 산업용품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Polyester 제품의 공동 개발을 위해 신제품 연구 및 상업화 활동 등 공동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해 나감으로써 기술의 상호공유를 이룰 예정이다.

조민호 휴비스 사장은 “제품 경쟁력, 영업망, 브랜드 가치 등 핵심역량을 공유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DTI와의 제휴로 세계적 Polyester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DuPont은 최근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영국 Polyester 공장을 폐쇄하고 일본 도레이사에 테프론 사업을 넘겨준 데 이어 섬유사업부 DTI를 분사시키는 등 섬유사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첨단 기능성 섬유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만 보유한 채 전세계 섬유공장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는 <DTI Alliance>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다.

휴비스와 DTI의 제휴는 DTI의 관련산업 제휴 중에서도 규모나 파급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특히 세계 화학 섬유 시장에서 휴비스의 입지가 크게 강화돼 앞으로 글로벌 Polyester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휴비스-DTI의 전략적 제휴 조인식 광경



<Chemical Journal 2003/06/05>